

## 김명순의 소설 「탄실이와 주영이」 연구

—텍스트 보완과 작품의 맥락을 중심으로

이 상 경\*

### 요약

이 연구에서는 김명순의 소설 「탄실이와 주영이」가 연재된 조선일보의 빠진 부분을 다 찾아서 중간 결락이 없는 온전한 본으로 발굴하고 이 판본에 의거해 「탄실이와 주영이」의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분석했다. 또한 김명순이 「탄실이와 주영이」를 연재하기 전에 먼저 나카니시 이노스케의 소설 『너희들의 등 뒤에서』를 일부 번역하여 연재한 것도 확인했다. 김명순의 입장에서는 자신과 비교되는 권주영이란 인물의 실체를 대중적으로 알려져 자기와는 거리가 먼 인물임을 드러내는 기회로 번역을 시도했지만 이익상이 번역을 하기로 하는 바람에 중단했다. 그러고서 주영이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탄실이의 진실을 전하기 위해서는 주영이와는 다른 탄실이의 모습을 전면적으로 그려내 보이고 싶어서 「탄실이와 주영이」를 창작했다.

또한 김명순의 아버지의 생존에 관한 연보 사항의 오류를 바로 잡으면서 집필 당시 아직 살아 있는 아버지는 1910년 한일합방의 해에 죽은 것으로, 일찍이 자살한 어머니는 아직 살아 있는 것으로 허구화시켰음을 밝혔다. 그 이유는 김명순이 성장하면서 여성적 주체성을 가지게 되고 그런 입장에서 가부장적 횡포를 부린 아버지에게 대한 미움과 그런 남자들에게 희생되고서도 도덕적으로 비난 받았을 어머니에 대한 이해가 생겼기 때문으로 보았다.

또한 보완된 텍스트에 의거하여 「탄실이와 주영이」가 근대 초기 계몽기의 평양의 열개화군 집안의 흥망성쇠에 관한 보고서로서 가족사연대기 소설의 면모를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 한국과학기술원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주제어: 김명순, 『탄실이와 주영이』, 나카니시 이노스케(中西伊之助), 『汝等の背後より』, 안경신, 김기진, 가족사 연대기 소설

목차

1. 머리말
2. 김명순 번역의 『너희들의 등 뒤에서』와 「탄실이와 주영이」 텍스트 문제
3. 『汝等の背後より』의 권주영과 현실의 안경신·김명순
4. 식민지 조선의 남성 문인 김기진에 맞선 김명순
5. 작가의 삶과 소설의 거리
6. 가족사 연대기 소설의 면모
7. 맺음말

## 1. 머리말

제1세대의 신여성으로서 김명순은 조혼과 자유 연애의 과도기에 처한 희생양이었지만 그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고 식민지 조선 사회를 ‘사나운 곳’이라 규정함으로써 남성중심 사회의 폭력성을 고발하는 용기를 보여준 작가이다. 그러한 행동에 의해 당연히 자신이 속했던, 속하고 싶었던 공동체로부터 ‘유폐’ 당하고 ‘추방’ 당하는 운명을 맞이했다. 이런 운명과 싸우면서 김명순은 시와 소설 산문 등 상당히 많은 작품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품의 의미는 충분히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1981년 아주 기본적인 연보를 붙인 ‘선집’이 출간된 후<sup>1)</sup> 2010년에야 제대로 된 전집이 나왔지만<sup>2)</sup> 미진한 부분이 있고 또 새로운 작품도 계속 발굴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김명순의 자전적 소설로 알려진 『탄실이와 주

1) 김상배 편, 『김탄실: 나는 사랑한다』, 도서출판 솔피, 1981.

2) 서정자·남은혜, 『김명순 문학전집』, 푸른사상사, 2010.

영이」를 여전히 미완이긴 하지만 중간 결락이 없는 온전한 본으로 발굴하고 이 판본에 의거해 「탄실이와 주영이」의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동안 「탄실이와 주영이」는 연재가 완결되지 못하고 중단된 데다가 작품이 연재된 시기의 『조선일보』가 중간 중간 결락되어 있었기에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래서 김명순의 자전적 소설로서 생애에 대한 정보를 얻고 그 삶을 해석하기 위해서<sup>3)</sup>, 또는 나카니시 이노스케(中西伊之助, 1887~1958)가 1923년 2월에 출간한 소설 『汝等の背後より』[너희들의 등 뒤에서]<sup>4)</sup>(東京: 改造社)와 관련지어서만 언급되는 수준에서 논의되었을 뿐<sup>5)</sup> 작품 자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쉽지 않았다.<sup>6)</sup> 그리고 그러한 논의들도 텍스트의 결락 때문에 사실에서 오류가 나거나 해석에서 적절하지 못하게 되기 십상이었다.<sup>7)</sup> 그런데 최근(2020년 4월) 조선일보사에서 창간 100주년을 맞아 공개한 “조선일보 뉴스라이브러리 100”에는 그동안 결락되어 있던 조선일보 지면이 상당히 많이 보완되었다. 그에 따라 「탄실이와 주영이」에서 결락되었던 부분의 신문이 모두 보충되어 이제 연재본 전체를 볼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탄실이와 주영이」를 연재하기 전 김명순이 나카니시의 소설을 ‘너희들의 등 뒤에서’라는 제목으로 번역하여 일부 연재한 것도 들어 있어서 드디어 「탄실이와 주영이」

3) 김명순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탄실이와 주영이」는 이런 식으로 읽혔다. 대표적인 것으로 김복순, 「신여성의 근대적 진정성의 형식: 김명순론」, 『페미니즘 미학과 보편성 문제』, 소명출판, 2005.

4) 이 논문에서는 나카니시의 일본어 작품을 그 뒤 한국에서 번역된 여러 판본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일본어 그대로 『汝等の背後より』로 쓴다.

5) 대표적인 것으로 신혜수, 「中西伊之助의 『汝等の背後より』에 대한 1920년대 중반 조선 문학 장의 두 가지 반응」, 『차세대 인문학 연구』 7,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2011.; 이원동, 「신경향파 소설과 젠더 배치의 상상력」, 『어문학』 138, 2017.

6) 「탄실이와 주영이」 작품 자체에 대한 논의는 신혜수, 「김명순 문학 연구-작가의식의 변모 양상을 중심으로」(이화여대 국문과 석사논문, 2009)가 참고가 된다.

7) 이러한 경우는 너무 많기에 실제 논의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만 지적하겠다.

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김명순이 일부이긴 하지만 『汝等の背後より』를 번역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그동안 결락된 부분을 복원한 좀 더 온전한 「탄실이와 주영이」를 대상으로 나카니시의 소설과 김명순의 관계, 「탄실이와 주영이」의 창작 배경, 소설 속 김탄실과 작가 김명순의 개인사의 거리, 그 거리의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 2. 김명순 번역의 『너희들의 등 뒤에서』와 「탄실이와 주영이」 텍스트 문제

「탄실이와 주영이」는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나카니시 이노스케의 『汝等の背後より』의 주인공 ‘권주영’이 김명순을 모델로 한 것이라는 당시의 소문에 맞서, 권주영과 ‘김탄실’을 비교하고 평양에서 자란 김탄실의 진면목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로 ‘되받아 쓴’ 작품이다. 1924년 6월 14일부터 7월 15일까지 『조선일보』에 총 28회 연재되었지만 지금까지는 그중에서 9회분(제3, 7, 10, 11, 12, 16, 17, 18, 19회)이 빠진 상태로 논의되어 왔는데 이번에 다 보완되어 연재분 전체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제28회 이후 아무런 설명이나 예고 없이 중단된 것은 그대로여서 여전히 미완의 작품이기는 하지만, 거의 삼분의 일이 결락되었던 것이 보충됨으로써 작품의 창작 동기와 관련하여 나카니시의 소설에 대한 김명순의 평가를 보여주는 제3회분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제6회부터 전개되는 탄실의 가족사, 즉 근대 초기 계몽기의 평양의 열개화꾼 집안의 흥망성쇠 부분이 풍부해졌다.

김명순은 1917년 11월 『청춘』에 「의심의 소녀」가 현상 공모에 당선되면서 등단했지만 짙막한 시나 소설을 매년 한두 편 발표하는 수준으로 있다가 1924년에 『조선일보』에 집중적으로 작품을 발표했다. 소설 「돌아다 볼 때」(3.31~4.19), 「외로운 사람들」(4.20~6.2), 「탄실이와 주영이」(6.14~7.15)를

연달아 연재하면서 중간 중간 시도 다수 발표했다.

그런데 결락 부분이 보완되면서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은 「외로운 사람들」 연재를 마치고 「탄실이와 주영이」 연재를 시작하기 전, 그 사이에 김명순이 나카니시의 소설 『汝等の背後より』를 번역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외로운 사람들」은 1924년 4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연재되고 6월 1일부터 6월 13일까지의 신문을 볼 수 없어서 이 작품이 완결되었는지 알 수 없었는데 이번에 “조선일보 뉴스라이브러리 100”에서 1924년 6월 2일에 한 번 더 연재되었고 이것으로 완결되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바로 이 1924년 6월 2일 「외로운 사람들」 마지막 회에 김명순이 나카니시의 소설을 번역하여 연재할 것이라는 예고 기사가 함께 실렸다.

본지 4면에 게재하던 소설 「외로운 사람들」은 여러분 독자의 갈채 속에서 오늘로서 끝을 막게 되고 장차 우리 민족의 인상을 그려낸 듯한 『너희들의 등 뒤에서』라는 장편 소설을 번역하여 게재합니다. 읽으시오! ○○○○○ 학대 받은 여인 주영의 용맹스러움과 아름다움과 슬픈 역사를 읽으시오. 8)

그러고서 바로 다음 날인 6월3일부터 6월 11일까지 ‘망양초’라는 필명으로 8회를 연재했다. 그런데 6월 11일 제8회가 게재된 같은 지면에 “지금까지 게재하여 오는 소설 『너희들의 등 뒤에서』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중지하오니 애독가 제씨는 용서하시기 바라나이다.” 9)라는 안내와 함께 『너희들의 등 뒤에서』의 연재를 중단하고 바로 이어서 1924년 6월 14일부터 7월 15일까지 「탄실이와 주영이」를 28회 연재했다. 이렇게 보면 김명순은 『조선일보』 1924년 3월 31일부터 7월 15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작품을 연재한 셈이니 1924년은 김명순 작가 생활의 절정기라고 할 수

8) 「소설 예고」, 『조선일보』 1924.6.2.

9) 「근고」, 『조선일보』 1924.6.11.

있다. 그리고 작품의 수준도 만만치가 않다.

김명순이 나카니시의 소설 『汝等の背後より』를 번역했다는 사실은 이 번에 처음 확인한 것인데 이 점은 김명순의 소설 『탄실이와 주영이』의 창작 동기나 연재를 둘러싼 상황 등을 규명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김명순은 왜 『너희들의 등 뒤에서』를 번역하기 시작했을까? 또 왜 번역을 중단했을까?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란 무엇일까? 번역을 중단한 뒤 아예 『탄실이와 주영이』라는 자전적 소설을 연재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김명순이 시와 소설을 집중적으로 발표하던 1924년 『조선일보』 지면에 『너희들의 등 뒤에서』 번역을 시작한 이유는 우선 나카니시의 소설이 식민지 조선의 문인들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기에 신문사에서 번역을 부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나카니시는 1910년대에 평양에 살면서 신문기자 생활을 한 적이 있고 식민지 조선을 배경으로 한 3부작, 『赭土に芽ぐむもの [붉은 흙에 싹트는 것 ]』(『改造』, 1922.2), 『不逞鮮人[불령선인]』(『改造』, 1922.9), 『汝等の背後より』(改造社, 1923.2)를 잇달아 발표했다. 식민지에 대한 이해가 있는 일본인으로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관련하여 당시 식민지 조선의 문단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그에 대한 문인들의 관심은 1925년 나카니시의 조선 방문을 계기로 KAPF가 결성되었을 정도이다.<sup>10)</sup> 그리고 김명순은 그 이전부터 외국의 시와 소설을 다수 번역한 번역가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익상이 나카니시와 직거래로 번역을 하기로 한 것이 알려지면서 일종의 저작권 문제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생긴 것이 아닐까 한다. 이익상의 번역은 ‘여등(汝等)의 배후(背後)로서’라는 제목으로 『매일신보』에 1924년 6월 27일부터 연재되기

10) 나카니시 이노스케의 『汝等の背後より』와 당시 식민지 조선 문단의 반응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신혜수, 『中西伊之助의 『汝等の背後より』에 대한 1920년대 조선 문학 장의 두 가지 반응』, 『차세대 인문사회 연구』 7,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소센터, 2011.7. ; 정종현, 『나카니시 이노스케(中西伊之助)와 식민지 조선의 프로문학』, 『한국학 연구』 59, 2020.11. 참고.

시작했다.<sup>11)</sup> 김명순의 번역이 중단된 지 2주일 남짓 후이다.

한편 김명순의 입장에서는 자신과 비교되는 권주영이란 인물의 실체를 번역을 통해 대중적으로 알려서 자기와는 다른 인물임을 드러내는 기회로 생각했을 수 있다. 사실 나카니시의 소설에서 일본 군인과 연애를 한 것, 성폭행을 당한 것 외에는 무기를 들고 독립운동을 벌이는 권주영의 사상과 행동은 김명순과는 거리가 멀다. 그런데 번역을 계속할 수 없게 되면서 나카니시의 권주영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신의 진실을 전하기 위해서는 주영이와는 다른 탄실이의 모습을 전면적으로 그려내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 점은 「탄실이와 주영이」가 제5회까지는 연재 당시의 시점으로 탄실이와 주영이를 비교하면서 탄실이는 주영이와 완전히 다르다고 논평한 뒤, 제6회부터는 과거로 돌아가서 탄실이의 성장 과정을 그리는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다만, 『너희들의 등 뒤에서』 번역 중단 후 곧바로 「탄실이와 주영이」 연재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 김명순에게서 번역과 창작은 선후로 이루어진 순차적인 과정이라기보다는 나카니시의 소설이 출간되어 조선 지식인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을 때 김명순이 그것에 대한 「되받아 쓰기」를 구상하면서 한꺼번에 진행한 작업으로 보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11) 이익상 역, 『汝等の 背後로서』, 『매일신보』 1924.6.27.~11.8. 이익상은 이것을 다듬어서 단행본 『汝等の 背後에서』도 출간했다. 지금까지 나온 『汝等の 背後より』의 한글 번역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모두 4종이다.

망양초 역, 『너희들의 등 뒤에서』, 『조선일보』 1924.6.3.~6.11.(미완)

이익상 역, 『汝等の 背後로서』, 『매일신보』 1924.6.27.~11.8.

이익상 역, 『汝等の 背後에서』, 문예운동사, 1926.

박현석 역, 『불명선인 · 너희들의 등 뒤에서』, 현인, 2017.

김명순과 이익상이 소설 제목을 번역한 것만 봐도 김명순의 번역 능력이 돋보인다. 실제 『조선일보』에 연재된 번역 문장을 이익상의 것과 비교해 보면 김명순의 번역이 훨씬 유려하다.

### 3. 『汝等の背後より』의 권주영과 현실의 안경신·김명순

『탄실이와 주영이』 제1회부터 5회까지는 탄실의 오빠 김정택과 그 집을 찾아온 소설가 지승학, 시인 이수정 세 사람이 김탄실과 권주영을 두고 나누는 대화를 통해 탄실이와 주영이를 비교하여 논하는 부분이고 제6회부터 탄실이의 가족사가 서술되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1923년 6월의 서울, 탄실이 집을 찾아가는 시인 이수정, 소설가 지승학 두 문학청년이 길에서 탄실과 마주치는데 탄실은 두 청년을 못 본 척할 정도로 쌀쌀하게 대한다. 손에 나카니시의 소설을 성경처럼 들고 다니는 이수정은 입만 열면 주영이를 찬양함으로써 탄실이를 비판하는데 실상은 이수정이 탄실에게 관심이 있었으나 탄실이가 쌀쌀하게 대하는 바람에 상처를 받고 벗어나 있는 상태임이 드러난다. 김정택은 탄실이와 주영이가 어떻게 다른가를 역설하고, 탄실이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사람들은 실상 탄실이를 가까이 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억하심정을 품고 탄실이를 헐뜯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그 중에서 다음과 같은 대목은 김명순이 권주영의 모델이라는 소문이 나게 된 이유를 말하는 것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오, 참, 그 『너희들의 등 뒤에서』라는 책은 우리 서모 집 사랑채에 셋방을 빌어가지고 있던 일본 청년이 쓴 것이라지. 그 주인공을 탄실의 행동과 말하는 것을 더러 묘사했었다지만 아주 다르지요. 그 책 가운데 주영이는 꼭 일본 여자지 어디 탄실이 같습니까? 그래도 그 작자는 탄실이 보담은 그 책의 주인공인 주영이가 훨씬 낫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선 사실부터 탄실이는 처음의 동정을 자기 스스로 깨트린 것이 아니고 앓긴 것도 또 일본 사람에게가 아니라 조선 사람에게 그랬으니까요.(제3회)<sup>12)</sup>

12) 이하 『탄실이와 주영이』를 인용한 부분은 인용문 끝에 연재 횟수만 밝힌다.



소설 속에서 작가 나카니시가 탄실의 오빠 정택이의 서모 집에 세 들어 살았다고 하는 것은 현실에서라면 김명순의 집에 세 들어서 살았다고 하는 셈인데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나카니시가 1910년대 평양 거주 일본인을 주된 독자로 삼는 『평양일일신문(平壤日日新聞)』의 기자로 평양에 살았고 그 뒤에도 조선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sup>13)</sup> 그러니 나카니시는 평양에서 행세하는 집안의 유명한 딸이었던 김명순의 집안 사정이나 1915년 김명순과 이응준 사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소문<sup>14)</sup>을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한편 최근 나카니시의 소설을 집중적으로 번역한 박현석에 따르면 정작 나카니시 자신은 1920년의 안경신(安敬信, 1888~?)의 사건에 충격을 받고 이 소설을 집필했다고 한다.<sup>15)</sup> 안경신은 임신한 몸으로 일본 경찰 1명을 사살하고 평양경찰서를 폭파하려던 여성이다. 평양여자고등보통학

13) 나카니시가 조선에서 지낸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오황선은 나카니시 자신의 말을 빌려 4, 5년을 평양에서 지낸 경험이 있다고 했다(오황선, 「나카니시 이노스케(中西伊之助) 소설의 내면풍경」, 『외국문학』 29, 1991.12). 카야나기 도시오高柳俊男는 1909년부터 1915년 혹은 1916년까지 살았다고 보고, 오오와다 시게루(大和田茂)나 고바야시 시게오(小林茂夫) 등은 1911년 2월경부터 1913년 말까지 체류한 것으로 본다(安都根, 「中西伊之助における植民地朝鮮他者認識の構圖」, 『愛知縣立大學大學院國際文化研究科論集』 13, 2012). 한편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는 『平壤と人物』(平壤日日新聞社, 1914)의 저자 中西末鎔는 中西伊之助과 동일인인데 『自序』를 1914년 2월 平壤 泉町에서 썼다고 부기하고 있고 이후 中西伊之助는 필화사건으로 평양 감옥에 4개월간 수감되기도 했다.

14) 당시 『매일신보』는 세 번에 걸쳐 김명순과 이응준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음을 보도했다.

15) 박현석, 「웁긴이의 말」, 나카니시 이노스케 지음, 박현석 옮김, 『불령선인 · 너희들의 등 뒤에서』, 현인, 2017. 권주영의 모델로서 안경신에 주목한 논의는 김여진, 「3.1운동 이후 조선인 표상 연구 - 나카니시 이노스케(中西伊之助)의 조선3부작과 동시대 신문미디어 비교를 통해 -」(고려대학교 대학원 중일어문학과 석사논문, 2020.2)가 있다. 다만 나카니시는 해방 후의 회고(中西伊之助, 『思い出の北鮮 · 平壤』, 人民戦線 25號, 1948.8)에서는 『汝等の背後より』의 창작 계기를 “한일합병 당시 평양 도청에 폭탄이 투하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조사해본 일이 있고 그 범인이 압록강을 건너 잠입해온 임신 중인 젊은 조선 여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낸 적이 있다”고 했었는데(오황선, 앞의 논문, 129면에서 재인용), 이는 나카니시가 삼일운동을 ‘한일합병’으로 잘못 기억한 것으로 보인다.

교 2년을 수료한 후 3·1운동에 적극 참가했다가 체포된 안경신은 풀려난 후 대한애국부인회 소속으로 활동하다가 중국으로 가서 대한광복군 총영에 가담하여 일제에 대한 ‘무력응징’에 나섰다. 장덕진(張德震, 1898년~1924년), 박태열(朴泰烈, 1874~ ?)과 함께 압록강을 건너서 평안북도 안주에서 경찰 1명을 사살하고 평양으로 들어와 1920년 8월 3일 평양경찰서에 폭탄을 설치하고 도화선에 불을 붙였으나 습기 때문에 불발로 실패했다. 사건 후 다른 동료들은 피신해서 중국으로 돌아갔으나 안경신은 임신한 몸이어서 함께 떠나지 못하고 함경남도 이원(伊元)에 숨어서 출산을 했다. 몸조리를 하던 중 1921년 3월 20일 체포되었는데 당시 생후 보름도 안 된 아기를 안고 있었다고 한다. 1921년 7월 평양 지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항소하여 1922년 4월 복심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되었다.<sup>16)</sup> 임신한 몸으로 무장 투쟁에 나선 안경신의 거사는 매우 충격적이었다. 나카니시의 소설 속에서 권주영은 일본에 가서 일본 군인과 연애를 하고 파란을 겪은 뒤 중국을 거쳐 조선에 돌아와서 아기를 안고 일본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 절벽 아래로 투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나카니시가 1910년대 평양에서 지낸 것, 삼일운동 후의 여자 폭탄범에게 큰 충격을 받은 것을 종합해서 보면 나카니시는 당시 조선에 실재한 김명순과 안경신 두 여성의 행적을 섞어서 권주영을 창조했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시 독자들은 권주영에게서 안경신의 모습은 못 보았을까? 그럴 리는 없다. 안경신의 거사는 그가 1921년 3월 체포되어서 1922년 4월 재판이 끝날 때까지 1년간 『동아일보』, 『조선일보』, 『매일신보』에 도합 32회 보도되었다.<sup>17)</sup> 그러니 식민지 조선의 독자가 1923년 2월에 출간

16) 1927년 12월 14일 가출옥했을 때 아기는 앞을 못 보는 상태였다고 하는데 이후의 행적은 알려진 것이 없다. 이상 안경신에 관련된 사항은 당시의 신문 기사를 정리한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기사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평남도청에 폭탄을 투한 진범인 2명 체포』, 『조선일보』 1921.4.28.; 『여 폭탄범 안경신 유아를 포하고 태연 법정에』, 『매일신보』 1921.10.1.; 『안경신은 징역 10년』, 『동아일보』 1922.4.10.

17)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를 검색한 것이다.

된 『汝等の背後より』을 읽었을 때 권주영의 임신, 폭탄, 출산 등의 요소에서 안경신을 충분히 떠올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김명순만 거론했던 것일까? 안경신과 김명순을 놓고 보면 안경신을 입에 올리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재미없는 일이었다. 일단 검열의 문제가 제일 컸을 것이고, 나카니시가 그려낸 ‘일본 여자’ 같은 성의식을 가진 권주영을 항일독립운동가 안경신에 감히 비길 수는 없었을 것이다.<sup>18)</sup> 반면에 김명순은 당시 문단의 남성들이 잘 아는 인물로서 연애나 성폭행 사건 등 여러 가지로 말밖에 올리기 쉽고 흥미로웠기 때문이다.

김명순이 『탄실이와 주영이』를 쓴 이유는 권주영과의 관계를 부정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조선 사람의 “간사스럽고도 겁 많고, 어리석고도 약한 것”을 드러내 보이겠다는 목적이 있었다. 작품 속에서 소설가 지승학의 입을 빌어 작가 김명순은 탄실이를 소재로 소설을 쓰는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다.

“그러면 김 선생, 내가 영매를 주인공으로 하고 소설을 지으면서 조선 사람의 일부를 그려내 보면 어떨까요. 그러할 것 같으면, xx가 『너희들의 등 뒤에서』를 쓸 때, 저희 나라 사람의 잔학함을 쓴 것과 같이 우리나라 사람의 간사스럽고도 겁 많고, 어리석고도 약한 것을 마음대로 들추어 볼 것입니다.”(제5회)

김명순은 『탄실이와 주영이』를 통해서 나카니시 이노스케의 『너희들의 등 뒤에서』를 직접 되받아 쓰는 데서 나아가, 김명순 자신을 둘러싼 남성 중심의 식민지 조선 문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평론을 가장한 비방이 내포한 문제의 뿌리를 드러내 보인 것이다.

18) “참 그러고 보면, 주영이는 일본 여자야. 그들같이 남자의 계급을 가리지 않고 정조관념이 없고 또 한편으로는 독한 여자가 없으니까.”라는 대목도 있다. (『탄실이와 주영이』 제5회, 『조선일보』 1924. 6.19.)

김정택이 탄실이와 주영이를 비교하면서 탄실이가 “일본 사람의 생활과 감정에 동화된 조선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탄실에게 가해진 조선 사람들의 학대가 김명순이 이 작품을 쓰게 된 중요한 동기임을 다시 보여 준다.

확실히 주영이와는 다를 것일세. 주영이는 끝끝내 이기주의자인 일본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고 속았지만 탄실이는 그 반대로 조선 사람이면서 일본 사람의 생활과 감정에 동화된 조선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았네. (...) 그뿐 아니라 탄실이 자신이 어떤 때는 일본 사람 이상 이기주의자이니까. 그 애가 일본 건너갈 때를 생각하면 그건 양의 새끼 같은 착한 여자가 아니고 이리 새끼나 호랑이 새끼 같았지.(제5회)

일본 사람에게 학대 받는 주영이에 대비해서 조선 사람에게 학대 받는 탄실이를 설정한 것은 여성으로서 식민지 조선을 견뎌야 했던 김명순 자신의 처지에 대한 성찰에서 나온 것이다. 탄실이가 겪었던 성폭행 사건은 ‘애국지사’였 하던 탄실의 숙부와 그의 후배인 일본 군인이 된 조선 남자의 공모의 결과이었다. 이 사건에 대해 탄실이의 오빠 김정택은 다음과 같이 진단한다.

참 말 못할 표독한, 꼭 무엇과 같은 사람이지요. 그 어린 것이 멀리 타향에 가서 그래도 저를 믿는데, 차마 그런 행동이 어떡해서 해졌는지, 도척이보담 더하지요. 그것도 웬, 제가 사권 것입니까? 내 삼촌이 시롱시롱 사귀어준 것이지요. 말하자면 내 삼촌이란 어른이, 심사가 고약하지요. 그것을 다 말하면 집안 흥이 날 테니까, 채 말은 못하지만 그것 참 불행한 운명에 빠진 여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즈음에도, 혹시 구할 수만 있으면 그 운명에서 구해주려고 하지만 어디 말을 들어요? 남사란 악마보담 더 거리긴다고 저주하니까. 본래는 아주 인정 많고 착한 여자이었지만, 그 타락하던 당시를 생각하면 아마 자기도 온전치는 못하던 모양이었

어요. 하나 어느 편으로 보든지 주영이와는 다릅니다.(제3회)

그 애가 10년 전에 동정을 제 마음대로도 아니고 분명한 짐승 같은 것  
에게 팔힘으로 앓기었다 하면, 시방도 바로 듣지 않고 내 누이만을 불량  
성을 가진 여자로 아니. 저 『너희들의 등 뒤에서』란 책이 난 뒤에도, 탄  
실이는 얼마나 염려를 하는지 그 꼴을 차마 눈으로 볼 수 없어서, 말끝마  
다 “오빠 내가 일본 남자와 연애했던 줄 알겠구려. 그러면 내가 창부 같  
은 계집이라겠지. 그리고 내게도 조성식이라든지, 김성준이라든지, 또 신  
춘용이라든지 그런 남자들이 있던 줄 알겠구려.” 하고 변민을 하고 또 울  
고 .....(제4회)

그 사건은 ‘짐승 같은’ 존재의 물리력에 의한 성폭행이었다는 것, 사람  
들은 남의 말만 듣고 자기 판단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 그 사건 이후로  
피해자 여성이 좀 더 성장했다는 것, 그리고 일본의 억압뿐만 아니라 조  
선 민족 내부의 문제까지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강  
조한다. 김명순의 이러한 글쓰기는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 자신의 목소리  
로 ‘성폭행’ 문제를 공론화시킨 최초의 사례일 것이다.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는 것은 “곧은 나무가 벼락을 맞은 것” 같은 상황인데도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고 남성은 “염복 있다”는 소리나 들으면서 멀쩡하게 결혼해  
서 살고 있는 것은 견딜 수 없다는 감정을 생생하게 드러낸다. 또한 여성  
이 “그 빨에 빠진 것 같은 상황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오히  
려 여성을 도로 눌러서 빨 속에 밀어 넣으려고” 하는 조선의 사회 상황에  
직설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 4. 식민지 조선의 남성 문인 김기진에 맞선 김명순

새로 보완된 제3회분에 나오는 다음 대목은 김명순과 당대 남성 문인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흥미롭다.

(...) 이수정은 급히 소리를 질러서,

“아아 주영이가 그림다, 주영이, 주영이. ‘전진 전진’ 하고 ‘앞으로 앞으로’ 하며 부르짖는 이들 가운데 주영이가 그림다, 내가 이상하는 것은 단순한 남에게 버려지고 수절하는 조선 여자가 아니고, 어디까지든 싸워나가면서 사람답게 사는 여자이다.” 하고 혼잣말같이 부르짖었다.

김 의사는 어처구니없는 듯이 웃으면서,

“이수정 군, 그림 자네도 내 누이를 은근히 지도하겠노라고 원하던 사람이 아닌가. 탄실에게 대해선 그런 입버릇으로 달려드는 사람이 많지. 그래서 그 애가 밤이면 이불 쓰고, 잠자는 대신 울어서 밤 새우지. 그러나 탄실이는 남에게 지도만 받을 여자는 아니고 구구이 사람에게 버려져서 그 사람을 위해서 수절하는 여자도 아니지. 대개 사람마다 핑계가, 탄실이와 친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면, 그 말이 그렇지. 그러니까 그 애가 신성한 자기를 더럽힌다고 남자를 절대로 가까이하지 않으려고 하지……” 하였다.(제3회)

나카니시의 소설을 떠받들고 다니며 짐짓 “주영이가 그림다”고 소리 지르는 시인 이수정이 실상은 탄실이에게 마음을 두고 탄실이를 ‘지도’하겠다고 하는 모습에는<sup>19)</sup>에 당시의 평론가 김기진이 겹쳐 보인다. 김기진은 수필 『프로므나드 상띠망딸』에서 다음과 같이 권주영이 그림다고 소리를

19) 제1회에 이수정은 “검정 양복을 입은 호리호리한 청년이 검정 책 한 권을 들고 무엇이라 이야기” 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제2회에서는 “탄실이야 주영이 같이 산 여자는 아니지. 아직 그 사람은 전형을 못 벗어난 사람이야. 그것을 내가 잘 인도하고 싶단 말이지……”라고 탄실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표하고 탄실이를 ‘인도’하고 싶다고 하고 있다.

질렀다.

주영이가 또다시 그리웁다.

주영이는 남쪽에 있느냐? 아니다. 북쪽에 있다.

주영이는 죽었으나 주영이는 살아 있다. 한 사람의 주영이는 죽었으나  
몇 사람의 주영이가 살아 있는지 알 수 없을 것이다.

아아, 주영이는 북쪽에 있다. 바람 찬 북쪽이 또다시 그리워진다...<sup>20)</sup>

김기진의 그 다음의 수필 『마음의 폐허, 겨울에 서서』에서는 권주영을 소재로 시를 쓰고 ‘연애 유희’가 아닌 ‘참된 사랑’을 한 권주영이 그림다고 되뇌이면서 나카니시의 소설 마지막 부분 - 권주영이 죽는 부분을 번역해서 신기까지 했다.<sup>21)</sup> 당시 신경향파 문학을 주장하면서 기존의 문학을 ‘부르주아 문학’이라고 소리 높여 비판하던 김기진의 입장에서 나카니시의 소설은 새로운 문학의 전범이고, 행동파 주인공 권주영 역시 지식인들이 지향해야 할 모델이었다.

그러나 작가 김명순은 그런 식으로 권주영을 찬양하는 것이 사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것을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우선 소설 속 인물의 입을 빌어 권주영은 조선 여성이기보다는 일본 여자 같다고 비판한다. 실제 권주영의 행동거지나 성의식 등은 당시 조선 여성의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나카니시 소설 전반에서 성적인 것에 대한 묘사는 일본적인 문학 전통에 닿아 있다. 더 나아가 “탄실이와 친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한, 즉 탄실이를 ‘지도’하겠다는 핑계로 탄실이에게 접근하려다가 탄실이의 냉정함에 상처 받은 남성들이 주영이와 탄실이를 비교하면서 탄실이를 비난하는 역설을 늘어놓는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사실 김명순과 김기진은 서로 모르는 사이가 아니었다. 아니 잘 아는

20) 김기진, 『Promeneade Sentinental』, 『개벽』 37, 1923.7.

21) 김기진, 『마음의 폐허, 겨울에 서서』, 『개벽』 42, 1923.12.

사이였다. 김기진은 1922년 가을 동경에서 토월회를 처음 만들던 때 김명순도 함께 했다고 토월회를 이야기할 때마다 김명순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sup>22)</sup> 그 자리에는 당시 김명순과 함께 지내던 임노월도 같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 즉 1922년 가을 무렵 김원주가 임노월과 가까워지면서 김명순은 조선으로 돌아오고 만다.<sup>23)</sup> 1922년 토월회에서 만났던 김기진이 1923년 5월 귀국해서 나카니시의 소설을 들고 ‘주영이 찬가’를 소리 높여 부르고 있으니 김명순은 그를 모델로 탄실이를 ‘지도’하려다 거절 당한 인물로 이수정을 묘사하면서 풍자한 셈이다.

『탄실이와 주영이』 연재가 중단된 후, 1924년 11월 김기진은 김명순의 사생활과 작품 활동 전체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김명순 씨에 대한 공개장」을 『신여성』에 발표했다. 자유분방하면서도 독립운동에 몸 바친 권주영을 찬양한다면서 실상은 여성으로서 부닥친 개인의 문제를 글쓰기를 통해 풀어나가고자 하는 김명순의 생활과 문학을 조롱하는 글이었다. 김기진의 공격에 대해 김명순은 「김기진 씨의 공개장을 무시함」이라는 반박문을 『신여성』 12월호에 실으려고 했으나 실제 실리지는 못했다. 하지만 김명순은 12월 3일에 썼다고 부기하고 있는 수필 「네 자신의 위에」에서 자신이 “유폐되지 않으면 추방될 운명”을 타고 났음을 다시 확인하면

22) 김기진, 「나의 '토월회' 시대」, 『신천지』 1954.2.

23) 김기진은 「나의 토월회 시대」에서 토월회를 시작한 해 가을에 김명순을 만났고 그해 겨울에 김명순이 귀국했다고 쓴 것으로부터 김명순이 임노월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귀국한 시기를 유추할 수 있다. 서정자 교수는 이 시기를 1921년 가을이라고 했으나 1922년 가을이 맞다. 서정자 교수는 김기진이 월탄 박종화에게 1922년 3월 22일과 그 뒤에 쓴 편지 쓴 2통에서 토월회 시작을 “작년 가을”이라고 쓴 것을 근거로 1921년 가을로 유추했다.(서정자, 「김기진의 「김명순 씨에 대한 공개장」 분석 - 김명순에 대한 미디어 테러 1백년의 뿌리」, 한국여성문학학회, 『여성문학연구』 제43호, 2018.04. 참고). 그러나 해당 편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김기진은 박종화에게 잡지 『백조』 제1호와 2호를 부쳐달라고 하면서 中西伊之助의 『汝等の背後より』를 박종화가 아직 안 읽었다면 한 권 부쳐주겠다고 말한다.(『팔봉 김기진의 서한』, 『삼천리』 1938.10.) 『백조』 제2호는 1922년 5월에 출간되었고 나카니시의 소설은 1923년 2월에 처음 출간되었으니 이 편지가 1922년 3월 22일에 씌어질 수는 없다. 『삼천리』 편집상의 실수인 것으로 생각된다. 1923년 3월에 쓴 편지에서 “작년 가을”이란 1922년 가을이다.



서 “이제 한 번은 너를 위하여 일어나 보자.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모든 인정을 물리치고 이제 다시 일어나자. (...) 네 한 몸의 문제만 풀며 너는 간다.”<sup>24)</sup>라고 자기 자신의 문제에만 집중하겠다고 투지를 불태운다. 그리고서 그동안의 작품을 모아 작품집 『생명의 과실』을 상재하기까지 한 것이다.

이 사건으로 대표되는 당시 조선 사회의 김명순에 대한 횡포, 사회적 폭력과 그것에 대한 김명순의 대응은 이 사건 이전에 발표했다가 이 사건 이후 창작집 『생명의 과실』에 수록하면서 개작한 작품들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 그 한 예는 소설 「돌아다 볼 때」의 연재본과 개고본 사이의 변화이다. 「돌아다 볼 때」는 평양 출신의 아름답고 능력 있는 신여성 류소련이 인천측후소에 견학을 갔다가 지식인 남성 송효순을 만나 애정을 느끼지만 그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서는 단념한다. 그리고서 그런 자신의 마음이 문제가 될까 봐 주변에서 권하는 대로 부유한 남성 최병서와 결혼을 한 뒤 자기가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당시 현실이나 소설에서 흔하게 보이는 삼각관계이고 대개 여성 쪽의 자살이나 전락으로 마무리되는 이야기인데 김명순은 「돌아다 볼 때」 처음 연재본에서는 소련의 자살로 끝냈는데 개작본에서는 소련이 자살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모색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sup>25)</sup> 사회로부터의 비난에 굴하지 않고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는 낙관적 결말은 남성의 억압이라는 현실을 고발하고 여성의 주체적 재탄생의 가능성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당시 다

24) 김명순, 「네 자신의 위에」, 『생명의 과실』, 한성도서, 1925. 김명순의 이 수필이 워낙에 '김기진 씨의 공개장을 무시함'이라는 제목으로 『신여성』 1924년 12월호에 실으려고 했던 김기진에 대한 반박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씌어진 시기가 김기진의 글에 잇대어 있고 자기 자신에 집중하겠다는 의미의 제목 '네 자신의 위에'는 김기진이 던진 근거없는 비난을 무시하는 것과 일맥 상통하며, 내용이 당시 김기진의 글과 관련된 상황에 대한 김명순 자신의 발언이기 때문이다.

25) 김명순의 「돌아다 볼 때」의 의미와 연재본과 개작본 사이의 변화에 대한 자세한 고찰은 김명훈, 「두 개의 신화와 두 번의 돌아봄, 그리고 하나이지 않은 X - 김명순의 「도라다 볼 때」 다시 읽기」, 『한국현대문학연구』 56, 2018.12. 참고.

른 남성 작가의 소설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김명순의 주체 세우기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추방 당하면서 철저한 개인주의에 자기를 유폐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김명순의 시 「유언」의 개작은 김기진의 「김명순 씨에 대한 공개장」 사건을 겪기 전과 후의 김명순의 입장의 변화를 더 선명하게 보여준다. 『조선일보』(1924.5.29.)에 처음 발표한 시와 개고하여 『생명의 과실』(1925)에 수록한 시를 비교해 보자.

「유언」, 『조선일보』 1924.5.9	「유언」, 『생명의 과실』 1925.4.
세상이여 내가 당신을 떠날 때 개천가에 누웠거나 들에 누웠거나 죽은 시체에게라도 더 학대하시오. 그래도 부족하거든 이 다음에 나 같은 사람이 있더라도 할 수만 있는 대로 또 학대하시오. 그러면 나는 세상에 다신 안 오리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작별합시다.	조선아 내가 너를 영결할 때 개천가에 고꾸라졌든지 들에 피 뿔았든지 죽은 시체에게라도 더 학대해다오. 그래도 부족하거든 이 다음에 나 같은 사람이 나더라도 할 수만 있는 대로 또 학대해 보아라. 그러면 서로 미워하는 우리는 영영 작별 된다. 이 사나운 곳아 사나운 곳아.

개작에서 감정이 훨씬 격렬해졌고 더 분명한 차이는 첫 연에서 ‘세상’을 ‘조선’으로 바꾼 것이다. 「김명순 씨에 대한 공개장」 및 여러 매체의 김명순에 대한 오해와 악의에 김명순은 민족공동체를 떠나 ‘개인’의 세계로 들어갔다. 당시 김명순의 ‘고발’은 다른 여성들의 응원을 받지 못했다. 김명순은 오히려 공동체에서 추방되고 유폐되었다. 그리고 문단이라는 공동체에서 추방당한 여성작가 김명순은 결국 조선이라는 민족공동체와도 결별하게 되었다. 공부를 통해 신여성이 되고, 타고난 자기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그것이 무엇을 지향하는지 분명하게 그릴 수 없었고 그것을 모색할 만한 물질 기반도 가질 수 없었던 상황에서 김명순은 연애, 결혼, 정조 등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련된 문제를 집중적

으로 제기하면서 기존 질서에 도전했다가 추방되고, 유폐되고, 마지막에는 미쳐버리는 운명에 빠졌던 것이다.

## 5. 작가의 삶과 소설의 거리

『탄실이와 주영이』를 읽으면서 주의할 것은 소설에서 그려진 탄실이의 가족사가 작가 김명순의 가족사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일 두드러지는 것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망 시기이다. 소설에서 탄실이의 아버지 김형우는 1910년에 죽었고 어머니 산월이는 김형우가 죽은 뒤 서울로 와서 진명여학교를 다니던 탄실이와 함께 사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김명순의 아버지 김희경(金羲庚)은 1924년까지는 생존한 것이 확실하고 반면에 어머니는 김명순이 어렸을 때 '투신자살한 것 같다. 여기서 는 이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고, 작가 김명순이 이렇게 부모의 죽음을 뒤바꾸어 쓰게 된 이유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우선 김명순의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는 열한 살 무렵인 1907년에 38세로 죽었다는 사실<sup>26)</sup> 이상으로는 알려진 것은 없는데 김명순의 작품을 두루 살펴보면 김명순의 어머니는 자살한 것 같다. 김명순의 소설에 모녀 관계에 대한 묘사가 없고 전반적으로 어머니가 부재한다는 점은 지적된 바 있다.<sup>27)</sup> 또한 김명순의 작품에는 여성 인물의 어머니가 자살했다는 내용이 자주 등장한다. 등단작인 『의심의 소녀』에서 주인공 가희의 어머니는 난행을 저지르는 남편을 못 견뎌 자살한다. 『돌아다 볼 때』(연재본)의 엄소련의 어머니는 기생이었다가 결혼해서 소련을 낳았지만 전 남편을

26) 『개화기 여류시인 김명순은 명문의 딸, 김동인 소설 김연실전 내용과는 다른 인물, 『동아일보』 1981.10.8.; 김상배 편, 『김탄실: 나는 사랑한다』, 도서출판 솔피, 1981.

27) 신혜수, 『김명순 문학 연구-작가의식의 변모양상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국문과 석사논문, 2009, 17-18면.

못 잊어서 자살했다.<sup>28)</sup> 수필 『경면독어(鏡面獨語), 어머니의 영전(靈前)에』의 “(...) 차라리 몇천 척 벼랑 아래 떨어져 “무절조하다”, “황량하다”, “무디다”, “뜰땀다” 하는 자심(自心) 투입(投入)한 그 자신들의 대명사 속에 썩은 나뭇잎같이 그 영구한 자멸 속에 속절없이 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대목도 유사한 상황이다. 죽어서 물에 떠가는 여자를 꿈에서 본다는 서술도 자주 등장한다. 그러면서 여성 인물이 그런 죽음에 이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쓴다. 딸이 불행한 어머니의 운명을 그대로 물려받지 않고 자신의 주체성을 찾아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탄실이와 주영이』에서 그려지는 산월-탄실 모녀 관계는 김명순 작품에 나타나는 다른 모녀 관계와 다르다. 탄실의 어머니 산월이가 기생 출신인 것은 김명순의 처지와 유사하지만 산월이는 아주 강한 생활력을 가지고 탄실이가 일본 유학을 떠날 때까지도 생존해서 탄실이를 보살펴 주는 것<sup>29)</sup>은 작품 속에서도 예외적인 것이고 실제 김명순의 모녀 관계와도 다른 것이다.

또한 대한제국의 몰락 과정에서 재산과 건강을 잃고 한일 강제병합이 이루어지던 해 갑자기 죽어서 이후 탄실이가 겪는 비극의 출발점이 되는 아버지 김형우의 존재도 실제 김명순의 아버지의 행적과는 다르다. 김명순의 아버지인 김희경(金羲庚)은 1896년 8월에는 평양의 지방관이었고<sup>30)</sup> 1901년 7월 9일 평양 감리서 주사에 임명되었다가 한 달만인 8월 9일에 면직되고 8월 26일에는 사면 받은 것으로 나온다. 더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당시 매관매직의 한 단면이 아닌가 한다. 1906년 8월 21일에는

28) 『돌아다 볼 때』, 제17회, 『조선일보』 1924.4.16.

29) 이렇게 소설 속에서 탄실이가 어머니를 긍정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 남은혜는 “자신의 낙인의 근원이 되는 어머니, 이모와의 관계를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 성찰함으로써 기존 사회와 문학에서 소외된 타자들을 포용할 수 있게 된 김명순 문학의 성과이다.”고 평가했다. 남은혜, 『김명순 문학 연구』, 서울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논문, 2008, 85면.

30) 『역인들이 소작료 징수를 방해한다는 평양군 마름의 고소와 처분』, 『驛土所關訴題存』, 1896.8.

6품의 수조관(收租官)이라는 관직도 한다.<sup>31)</sup> 이후에도 김희경은 평양에서 돈 있고 권력 있는 유지 인사로서 서우학회, 서북학회, 대한협회의 계몽 운동에서 참여했다. 1907년 7월 8일 평양 명륜당 안에서 여자교육연구회가 열렸을 때 김희경은 안창호와 함께 연설자였고 기부금도 내었다.<sup>32)</sup> 식민지가 된 이후에는 평안남도 참사(參事)라는 감투를 썼다. 참사는 조선 총독부가 구관제도를 조사하기 위해 둔 직책이었다. 1914~1918년 평남도지조사위원회 위원도 지냈다.<sup>33)</sup> 1923년에는 평양부협의회 선거에 후보자로 나섰고<sup>34)</sup> 1924년에는 평양의 시민운동회에 기부를 했다는 소식까지 확인할 수 있다.<sup>35)</sup>

그런데 소설에서는 탄실이의 아버지 김형우는 1910년을 전후해서 재산을 털어놓고도 벼슬을 못하게 되자 실의하여 죽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은 후 탄실이는 유학을 가기 위해 숙부 김시우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숙부가 소개한 태영세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비극이 빚어진다.

탄실의 숙부 김시우는 일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돌아와 형에게 몰심양면으로 후원을 받으면서 애국운동을 하는 동시에 형의 엽관 운동도 하다가 형의 재산을 거덜내고 말았다. 또한 김시우와 함께 어울려 다니던 이들은 1910년을 전후하여 일제에 의해 고초를 겪거나 국외로 망명하게 된다. 말 타고 군복 입은 모습으로 나타나 ‘애국지사’이자 엽관 운동을 하는 존재인 김시우는 김명순의 숙부 김희선(金羲善, 1875~1950)과 거의 겹친다. 김희선은 1895년 관비유학생으로 일본에 갔고 1899년 일본육군사관학교를 수료했다. 돌아와 대한제국 무관학교 교관을 지냈다. 1907년 12월

3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에서 金羲庚으로 검색.

32) 『여자 교육의 시찰』, 『대한매일신보』 1907.7.18.

33) 『조선총독부 및 소속 관서 직원록』 1914~1920년도분에 의함.

34) 『점차 백열화 되어 가는 평양부의 수륙전(遂鹿戰), 조선인 후보자가 18명인데 불일간 태도가 선명해올 모양』, 『매일신보』 1923.11.14.

35) 『공조 공약의 시민운동, 비 오듯 하는 의연금, 열정이 영진 시상품』, 『시대일보』 1924.5.8.

근위기병대 대대장을 지냈다. 『탄실이와 주영이』에서 김시우가 군복을 입고 말을 타고 왔다는 것은 이 무렵의 김희선에 대한 김명순의 기억일 것이다. 1909년 군부 폐지로 육군기병 참령으로 예편했고 10월 독립운동에 투신하고자 중국으로 가서 1910년 10월 칭다오에서 유동열, 이강, 신채호, 안창호 등과 독립운동의 방략을 논의하기도 했다. 베이징에서 체포되어 강제 귀국 당한 뒤 육군기병 참령의 예우를 받았다. 평남 개천 군수, 안주 군수 등을 지내고 지방토지조사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김명순에게 성폭행을 한 이응준은 김희선의 일본육군사관학교의 후배였다. 김희선은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군수직을 내놓고 중국으로 갔다가 11월 돌아와서 사이토 총독을 만나 거액의 돈을 받고 상해 임시정부로 갔다. 임정의 군무부차장, 육군무관학교 교장까지 맡았지만 1921년 10월 조선으로 돌아왔다. 이후 1922년 1월 임정에서는 김희선의 변절과 밀정 활동을 확인했다.<sup>36)</sup>

소설 속에서 평양 부자 김형우와 대한제국의 무관 김시우는 개화 운동과 엽관운동을 동시에 벌이는 열개화꾼 같다. 이들의 활동은 역사적으로 보면 1905년 이후 서북지방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계몽운동과 신민회 활동 그리고 일제가 이러한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 낸 105인 사건 등과도 연관되어 있는 것이었다. 이런 김시우의 모델이 된 김희선이 현실에서 변절자가 되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김희선의 이러한 행적은 훨씬 뒤에 알려진 것이고 김명순이 『탄실이와 주영이』를 쓸 때에는 이런 사실에 대해 아직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탄실이와 주영이』에서 김시우에 대한 묘사는 이러한 김희선의 훗날의 행적을 예감하고 미리 고발을 해놓은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날카롭다. 소설 속에서 산월이는 처음부터 김시우를 경계하고 못마땅해 하며, 정택이는 김시우가 탄실이를 태영세에게로 밀어붙여 탄실이를 불행에 빠뜨린 고약한 인물이라고 했다. 소설가

36)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친일인명사전』, 민족문제연구소, 2009; 정운현, 『친일파의 한국 현대사』, 인문서원, 2016.

김명순의 재능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작가 김명순은 「탄실이와 주영이」를 쓸 때 아직 멀쩡하게 살아 있는 아버지를 소설 속에서는 1910년에 죽는 것으로 썼을까? 작품 속에서 보면 교회에 열심히 다니던 어린 탄실이에게 부모는 부끄러운 존재였다.

“기생의 딸, 첩의 딸, 저것도 그렇게밖에 더 될라구.”

“게다가 천태가 저렇게 나니 재가 나중에 무엇이 될꼬.”

“저 애 아버지도 일본 사람 앞으로 장사를 한다지. 그 전에 어디 군수로 있을 땐 아주 큰 부자를 몇 사람 망쳤는지 모른대.”

(...) 그는 그 아버지가 전일에 군수를 지냈다 한 것은 어림פות이 들었으나 그렇게 학정질까지 한 줄은 몰랐고, 또 일본 사람과 드문드문 상종은 할지라도 그렇게까지 친밀해져서 동사를 하는 줄은 몰랐었다. (...) 이 마리아에게 지지 않으리만치 진실한 하나님의 딸이 되려고 하는 탄실에게는 그 육신의 부모가 너무나 깊은 죄인이었다. 첩의 딸, 기생의 딸, 일본 탐정의 딸, 학정꾼의 딸. 그는 자기 귀에 들리는 이 더러운 대명사에 기절을 하도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제10회)

김형우는 일본에 협력하여 자기 잇속을 챙기는 사람이고 산월이는 기생 출신 첩으로서 탄실이가 “첩의 딸, 기생의 딸”이란 손가락질을 받게 하는 존재였다. 부모의 ‘피’에 대한 이야기는 「탄실이와 주영이」 이전 소설인 「돌아다 볼 때」에도 나온다.

내 몸에 도는 모든 피가 나를 저버리고 만다. 온 여자를 다 더럽히고 싶던 아버지의 피가, 몸을 더럽히면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못 잊어서 죽어버렸다 하는 어머니의 피에 섞여서 나 같은 천치가 되었다.<sup>37)</sup>

37) 김명순, 「돌아다 볼 때」 제19회, 『조선일보』 1924. 4. 18.

그런데 온갖 시련을 겪고 어른이 되어 『탄실이와 주영이』를 연재하고 있는 1924년의 시점에서 김명순은 어머니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은 이해하게 된 반면 돈과 권력으로 자기 한 몸의 욕망만을 추구했던 아버지는 더 미워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현실에서 김명순에게 아버지 김희경은 “육신의 평안을 위하여 영혼의 아픔을 참게” 하는 존재였기에 부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있던 “10년간을 엄부(嚴父)의 명령에 위반한 간난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아버지의 집에 돌아간다는 것은 자기의 지난 시간을 부정하는 것이기에 김명순은 아버지의 집에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고 다짐했다.<sup>38)</sup> 이 다짐이 소설에서 그 시간 동안 아버지의 존재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일찍 죽어서 더 이상 탄실이의 삶에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존재로 그런 반면, 어머니에 대해서는 사죄하는 마음을 담아 소설에서 탄실이가 산월이와 모녀의 정을 회복하는 것으로 묘사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김명순 연구에서는 김명순의 연보를 작성하면서 대개 『탄실이와 주영이』의 내용에 근거해서 1910년에 아버지 김희경이 죽은 것으로 정리해 왔다. 위에서 보았듯이 김희경은 1910년에 살아 있었으며 1924년까지는 생존한 것이 분명하다. 현재 남아 있는 김명순의 진명여학교(1911년 입학)와 숙명여고보(1916년 입학)의 학적부에서도 각 학교 입학 당시 아버지 김희경이 보호자로서 생존해 있고 직업이 ‘군(郡) 참사’라고 기록되어 있다.<sup>39)</sup> 심지어 김명순의 동생들이 자신의 집안과 김명순에 대해 밝히는 인터뷰 기사도 나왔고<sup>40)</sup> 그 유족을 직접 만나 김명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펴낸 『김명순 전집』<sup>41)</sup>에는 1919년에 찍었다는 설명

38) 김명순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김명순이 1925년 12월에 집필한 수필 『향수』에서 읽을 수 있다. 『향수』는 제2작품집 『애인의 선물』(회동서관, 1929?)에 실려 있다.

39) 학적부는 서정자·남은혜 공편저, 『김명순 문학전집』, 푸른사상, 2010에 화보로 실린 것을 참고함.

40) 『개화기 여류시인 김명순은 명문의 딸, 김동인 소설 김연실전 내용과는 다른 인물』, 『동아일보』 1981.10.8.



이 붙은 김희경의 사진이 실려 있다. 그런데도 이후의 연구자들은 김명순의 연보를 작성하면서 1910년에 아버지 김희경이 죽었다고 했다.<sup>42)</sup>

왜 연구자들은 여러 가지 공식적인 기록보다 「탄실이와 주영이」를 더 믿게 되었는가? 그것은 「탄실이와 주영이」에서 김형우의 죽음이 현실에서도 그대로 일어난 일로 믿게끔 서사 전개가 사실적이고 설득력 있게 묘사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다음과 같은 대목은 작가 김명순이 자기의 부모 세대와 대한제국의 몰락에 보내는 조사로서 빛나는 대목이다.

모든 일은 꿈결과 같이 사라졌다. 애국지사들의 xx운동도, 또 김형우의 관찰사 운동도 모두다 물거품보다 쉽게 사라졌다. 그 나머지가라고는 집 문권, 밭 문권을 깡그리 10분의 1도 되지 못할 험하기로 잡힌 일인(日人)의 빛밖에 남은 것이 없었다. 남은 것은 이보다 더 쉽게 참으로 학대밖에 남은 것이 없었다. 길거리마다 상투를 튼 조선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떠드는 말을, “하따라 마따라.”라고만 듣다가, 상투를 꺼들리고 뺨을 맞았다. 정신 소리가 줄고, 나막신 소리가 대낮에 서울 시가를 돌아 들리게 되었다.

모든 흥계, 모든 노름, 모든 음란, 모든 간악의 나머지가 모두 빛이 되어서 집을 팔고 전답을 팔고, 하늘을 팔고, 땅을 팔고, 관 같은 방안에 게으름만 남겼다,

모든 사람은 착실한 운동도 해보기 전에 횡설수설하다가 흥바지 청바지만 입고, 게으름을 완전히 부러볼 철창 속에 갇혀서 우두커니 텅없이 악형 당할 때만 기다렸다.

41) 김상배 편, 『김탄실: 나는 사랑한다』, 도서출판 솔피, 1981.

42) 서정자 · 남은혜 공편저, 『김명순 문학전집』, 푸른사상, 2010, 829면. 전집의 편자들은 “진명여학교의 학적부에는 퇴학 당시 부모가 생존한 것으로 나와 있으나 작가의 자전적 기록을 참고”하여 1910년에 김희경이 죽은 것으로 정리한다고 덧붙이기까지 했다. 필자 역시 별 문제의식 없이 전집을 따라 김명순의 아버지가 1910년에 갑자기 죽었다고 정리한 바 있는데(김경일 외 지음, 『한국근대여성 63인의 초상』,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5, 76면) 이 자리를 빌어 그 오류를 바로잡는다.

그들은 아무 열성스러운 의의(義意)도 분명히 갖지 못하고, 다만 나라를 잃겠다, 임금이 외국 왕에게 학대를 받겠다, 황후가 ○○을 잃고 욕을 보겠다, 하는 맘으로, 나라 즉 백성들인 것을 알지 못하는 듯이 뒤떠들며 달아나고 간헐했다. 그런 중에서도 서로 음모하고, 서로 욕하기는 잊지 않았다. 그들은 벌써 이등 통감 통치하에 일본제국의 새 헌법의 일본 간수에게 갖은 인정 없는 학대를 받으라고 자기의 친구이던 혐의 있는 사람을 무함해서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였다.

이등 통감이 하얼빈서 죽기 전후 2, 3년 동안에 옹희의 백성들은 얼마나 모르고 게다가 악형을 당했을까.(제21회)

즉 청일전쟁에서 전후로 '개화'의 물결에 성공적으로 올라타서 돈을 모았지만 그 돈으로 '관찰사 운동'을 하는 퇴영적인 행태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다는 것, 대한제국의 멸망과 한일합방은 그런 열개화꾼들의 시대가 끝나고 일본을 통해서 '근대'를 배운 영악한 식민지 자본가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라는 점을 김형우의 죽음을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열개화꾼 김형우의 시대는 1910년으로 끝나는 운명임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 김명순의 작가적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 6. 가족사 연대기 소설의 면모

『탄실이와 주영이』 제6회부터는 탄실이의 회상으로 탄실이의 가족사가 펼쳐진다. 청일전쟁 이후의 평양에서 시작하여 1910년대 중반 탄실이가 일본 유학에서 태영세를 만난 것까지 20년의 시간에 대한 탄실이의 과거 회상은 대한제국기의 시대적 풍경을 여성 개인사의 차원에서 포착한 특별한 가족사 연대기이다. 조선시대 정치권력에서 배제되어 있던 서북지역, 특히 평양에서 사람들이 '개화'의 바람을 타고 돈을 모으고 관직을 사고

팔다가 몰락하는 양상, 그 어느 지역보다 기독교가 융성하여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평양 기독교 사회의 이면, 즉 평양의 개명한 남성들이 펼쳤던 ‘개화’와 계몽운동의 실상을 여성의 눈으로 그렸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동안은 제6회부터 28회까지 23회분 중 8회가 결락되어 있어서 「탄실이와 주영이」의 이러한 가족사 연대기적인 측면을 제대로 읽을 수 없는 상태였는데 이 부분이 모두 보완되면서 이 시대의 평양 사람들의 삶의 이면, 그리고 일본의 강제 병탄 전후 서북 지방 중심의 ‘신민회 사건’ 관련자의 일부 상황까지 매우 풍부하게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우선 논의의 편의를 위해 탄실이의 가족사, 즉 「탄실이와 주영이」 제6회 이후의 내용을 요약 제시한다.

탄실이의 아버지 김형우는 어느 고을 군수로 있을 때 기생이었던 산월이를 첩으로 얻었고 탄실이가 태어났다. 그 뒤 김형우는 대동강변에 큰 무역상을 해서 부자가 되었다. 남산재 예수교 학교에 다니게 된 탄실이는 친구들에게 “첩의 딸, 기생의 딸, 일본 탐정<sup>43)</sup>의 딸, 학정꾼의 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특히 어머니 산월이를 부끄럽게 여겼다. 1906년 무렵 탄실의 삼촌 김시우가 평양에 나타났다. 김시우는 일본에서 사관학교를 다닌 군인이었다. 김형우는 동생 김시우를 통해 관찰사 자리를 얻겠다고 재산을 다 털어 넣었다. 김시우는 ‘애국지사’로서 나라일을 도모한다고 연회를 열고 기생을 부르며 형의 돈을 탕진했다. 탄실이가 열한 살이 되었을 때 부흥회를 이끌던 교회의 목사가 정작 유부녀하고 바람이 나는 사건이 발생하여 탄실이는 학교와 기독교로부터 마음이 떠나고 어머니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러고서 탄실이는 서울 진명학교로 유학을 갔다. 김형우는 산월이의 돈까지 다 갖다 썼으나 1910년을 전후하여 애국지사들의 독립운동도 김형우의 관찰사 운동도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 패가망신한 김형우가 죽으면서 산월과 탄실에게는 빚만 남았다. 여학교를 졸업한 후 탄

43) 탐정이란 정탐꾼, 곧 밀정이란 의미이다.

실이는 어머니를 속이고 일본 유학길에 올랐다. 김시우는 탄실에게 일본 무관학교의 후배인 태영세를 소개해 주었다. 일본에서 탄실이와 태영세 사이에 무언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시점에서 연재가 중단되었다.

소설에서 가족사 연대기가 시작되는 부분의 다음과 같은 묘사는 청일 전쟁의 전쟁터가 되었던 평양에서 전쟁 이후 생긴 변화를 잘 드러낸다.

지금부터 28년 전에, 갑오난리를 지나고 나서 평양성 안이 제법 흥성 거러졌을 때다.

평양성 안 사람은, 지금은 그 전쟁 당시에 무섭던 이야기와 괴롭던 이야기를 드물게 하였다.

그들은 하루 바빠 돈벌이를 해서 남의 전쟁 틈에 잃어버린 재산을 도로 회복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한 집안의 가장이나 장자가 살아있는 집 이야기고, 불행히 전쟁 틈에 남편이나 아들이 죽은 집에서는 청년 과부와 노년 과부가 밥을 죽을 하면서 그날그날의 옷 근심, 밥 근심을 먹어도 살이 찌지 않도록 몹시 하였다.

이와 반대로 한 집의 가장이 살았거나 아들이 살아있으면 급히 부자가 되어서, 군수나 관찰사 부럽지 않게 부자 되는 수가 있었다. 그래서 과부들의 바느질 품팔이 하기도 재미나리만치 혼전혼전해졌다.

남자들은 대개 일본말을 배워 가지고 일본 사람의 통역도 하고 또 전에는 꼭 영남사람만 벼슬하던 것을 전쟁 이후로는 북쪽 사람들도 여간한 무관의 지위를 얻어서 상투 위에 모자를 쓰고 구부러지고 일그러진 그 몸에 군복을 입고 주적거리게 되었다. 그래서 제일 첫 영화로 기생을 마음대로 수청들이고, 또 남의 집 유부녀라도 권리로 뺏어다가 첩을 만들었다. 그것은 지금껏 북선의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남선 사람들의 권리인 동시에 행악을 고대로 배운 것이었다. 북선 사람은 한 고을에 군수나 또한 도의 관찰사로 온 사람들의 무도한 행악을 얼마나 원망하고 서러워하였을까. 그러나 그들은 그 사람들의 행악을 버리지 못하고 돈을

들여서 좋은 지위를 얻어서는, 남선 사람들이 하던 이상 학정질을 해서 양민(良民)을 무함하고 가두고 죽이고 돈을 빼앗았다.(제6회)

청일전쟁 이후 사회 제도와 질서가 바뀌면서 평양 사람들도 돈으로 벼슬을 사서 학정질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소설 초두에서 지승학의 입을 빌려 탄실이의 삶을 통해 “동포들의 잔학함과 간악함”을 드러내는 소설을 쓰겠다는 의지를 밝혔거나 속한 자신들이 처한 사회적 처지에 따라 다르게 자신만의 청일전쟁을 겪는 모습을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데서 작가의 숨씨가 돋보인다.

소설 속에서 묘사되는 탄실의 아버지 김형우는 시세를 타서 돈을 모았고 당대의 계몽운동에 기부하는 동시에 관찰사 벼슬을 사려고 노력하다가 사기를 당해 패가망신한다. 바로 1910년에 죽는 것이다. 이렇게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려다 실패하는 개인의 운명을 작가는 매우 비판적으로 냉정하게 묘사한다. 김형우가 벌이는 엽관운동은 산월의 눈으로 보면 옳지도 않고 위험한 일이다.

우선 산월 모녀의 재산은 이번 관찰사 운동에 반 너머 들어갔다. 만일에 김형우는 관찰사를 얻어 할 것 같으면 그 재산을 전부 뽑아낼 결심이다. 하나 산월의 생각으로 보면 지금 세상에 그런 일은 아주 옳지 않은 일일 뿐 아니라 심히 위험한 일이었다. 그 세월에 어떤 촌 사람의 아들은 일본 가서 공부를 해 가지고 돌아가서 그 부친이 한 옛적에 서울 어떤 양반에게 앓긴 재산을 이자까지 합해서 도로 돌이켰다는 말이 경향 간에 너무나 왁자지껄할 뿐 아니라, 뇌물을 받고 벼슬을 판 사람은 거진 감옥에 들어가서 고역을 하게 되었다.(제19회)

소설에서 탄실이의 어린 시절에 큰 영향을 미친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은 평양의 기독교 부흥운동이다. 소설에서 탄실이는 아이들이 전도 운동

을 다니는 것을 보면서 교회에 그리고 학교에 다니겠다고 즐겼다. 어머니는 부정적이었지만 아버지가 학교에 보내주었다.<sup>44)</sup> 교회에서는 기생이나 첩노릇하는 것은 큰 죄악이라고 설교한다. 탄실은 과거에 기생이었고 또 지금도 첩으로 있는 어머니 산월이가 부끄러워서 산월이를 부정하고 교회에 잘 다니는 아버지의 본처(큰어머니, 정택의 모친)를 자기 어머니로 삼아 큰집에서 지낸다. 그러다가 큰집 식구의 본심이 자신을 미끼로 김형우를 끌어들이려는 것임을 알게 되고 또 산월이를 첩이라고 비난했던 교회의 목사가 교인과 성추문을 일으키고 도망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탄실이는 산월이에게로 돌아온다. 그리고 평양을 떠나고 기독교를 떠나 서울 진명학교로 진학하는 것이다.

이 소설에서 산월이가 어린 탄실이의 애원에 못 이겨 끌려간 교회에서 자신이 경제적 핍박 속에서 기생이 되고 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어떻게 죄가 되겠냐고 일장 연설을 하는 장면은 당시 ‘평양대부흥운동’을 기독교 바깥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한 준거점을 시사하는 소중한 장면이다.

내게는 신명이 돕지 않으셔서 여덟 살 나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오라버니가 계시더니 그나마 내가 열두 살 되었을 때 전쟁 틈에 청인에게 맞아 죽고, 내가 제일 위로 남아서 편찬을 봉양할 길이 없어서 기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기생이라는 것은 남의 큰마누라가 되는 법이 없으니까 자연히 나도 남의 첩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나도 죄악인 줄은 알지요. 그러나 어찌합니까. 지금은 내 한 몸도 아니고 이런 어린 것이 있고 보니 금시로 그 집에서 나올 수도 없지 않습니까? 자백은 하나 안 하나 거진 비방한 일이지요. 이 세상 사람이 죄다 죄악이 있다고

44) 남산현 소학교는 1896년 남산재 교회 교인들이 교회 안에 따로 건물을 세워 만든 기독교 학교였다. 탄실이 다닌 여학교는 선교사 사택에서 소규모로 시작하여 1902년에 남산재 교회 남학교 옆에 별도 건물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한다. 남산재 교회와 남산재 학교에 관해서는 이덕주, 『남산재 사람들』, 그물, 2015, 60-72면 참고.

할 것 같으면 하느님이실지라도 그것을 일체로 헤이시지 않는 편이 좋지 않을까요?(제9회)

1907년의 평양대부흥운동에서 성행했던, 신도들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허위의식에 갇혀 있고 비논리적인 것인지를 드러내고 있다. 또 소설 속에서 언급되는 유명한 목사의 성추문 사건<sup>45)</sup> 역시 탄실이가 기존 도덕에 비판적 입장을 가지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런 때에 불행하게도 회당 안에서는 큰 풍파가 일어났다.

…… 완전 신의 피를 끌어가며 얼굴에 열을 올려 가면서 주먹으로 탁자를 두들기고 발로 강단을 올리고, 몇천 명 되는 신자의 귀에 하나님의 진리를 말해서 새 생명을 불어 넣어주는 듯하던 성신을 받은 회당 목사가 남의 집 과부를 간통하다가 발각되었다고…….

여러 신자들은 실심했다. 어떤 사람은 다시는 회당에 안 온다고 이름을 지워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자식을 학교에서 아주 데려갔다. 이 틈에 산월은 예수교를 그 딸의 머리에서 아주 빼내도록 하려고 곰곰 타일렀다.

그것 보아라. 회당에 다니더라도 무슨 보람이 있나. 제일 회당 안에서 성신 받았다고 뉘떠들던 목사가 그런 좋지 못한 행동을 하지 않았나? 믿기는 무엇을 믿겠니? 그것이 다 사람을 찢어 들이는 수단이지. 남의 첩은 예수를 믿어서 천당에 가지 못하느니라, 죄를 다 자백해라, 하던 목사가 저는 자백도 안 하고, 잘난 듯이 모든 사람 위에 올라앉았던 것이 그 꼴을 하고는 처자를 버리고 달아났으니 그 나머지가 말하지 않아도 알 이지 무엇이 변변하겠니 …….(제19회)

45) 실제 1907년 8월 평양 남산현 교회 담임 이은승 목사가 성추문 사건으로 목사직을 사임하고 교회를 떠났다. 이은승 목사는 당시 평양 장대현 교회의 길선주 목사와 함께 평양 대부흥운동의 주역이었다. 이덕주, 『남산재 사람들』, 129면.

1907년의 평양대부흥운동에서 신도들은 집단적으로,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를 큰 소리로 고백했고 이것이 부흥운동의 큰 동력이었다. 그런데 김명순은 그러한 부흥운동의 양면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기독교의 허구성을 고발한 셈이다.

일제의 총동원체제가 가동되는 1930년대 말이면 여러 작가가 자기의 유년시대를 회상하며 대한제국기와 1910년대를 배경으로 자전적 색채가 짙은 가족사 연대가 소설을 쏟아냈다. 김남천의 『대하』(1939), 김사랑의 『낙조』(1940~1941), 이기영의 『봄』(1940~1941), 한설아의 『탑』(1940~1941), 이태준의 『사상의 월야』(1941) 같은 작품이 그렇다. 그런데 1930년대 말은 이미 일제의 통제가 극도로 강화된 시기여서 소설의 배경이 된 대한제국 말기, 식민지 초기의 정치적 상황이나 식민 지배에 비판적인 시선을 직접 드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작품의 초점 화자가 모두 소년이었기에 성에 눈떠 가는 '설렘'이 묘사되어 있다. 이에 비하면 1924년에 여성 작가로서의 자신에 대한 여러 부정적인 시선을 딛고 김명순이 발표한 『탄실이와 주영이』는 서북지역 열개화꾼 김형우와 김시우의 행태를 통해 좀 더 직접적으로 식민지 근대화의 부정적 측면을 드러냈다. 또한 초점 화자가 소녀 탄실이였기에 가난 때문에 기생이 되고 첩이 된 산월이에 대한 오해와 이해의 과정 및 태영세에게서 소녀 탄실이가 느끼는 성적 '공포' 를 드러내는 등 여성 성장소설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 7. 맺음말

이상에서 김명순의 자전적 소설로 알려진 『탄실이와 주영이』를 여전히 미완이긴 하지만 중간 결락이 없는 온전한 본으로 발굴하고 이 판본에 의거해 『탄실이와 주영이』의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분석해 보았다.

그동안 『탄실이와 주영이』에서 결락되었던 부분의 신문이 모두 보충되



어 연재분 전체를 볼 수 있게 되었고 「탄실이와 주영이」를 연재하기 전 김명순이 나카니시의 소설 『너희들의 등 뒤에서』를 일부 번역하여 연재한 것도 확인했다. 김명순의 입장에서는 자신과 비교되는 권주영이란 인물의 실체를 대중적으로 알려져 자기와는 거리가 먼 인물임을 드러내는 기회로 번역을 시도했지만 이익상이 번역을 하기로 되었고 김명순의 입장에서는 주영이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탄실이의 진실을 전하기 위해서는 주영이와는 다른 탄실이의 모습을 전면적으로 그려내 보이고 싶어서 「탄실이와 주영이」를 창작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자전적 소설과 작가의 생애 사이의 거리도 살펴보았다. 김명순이 작품 창작 당시 아직 살아 있는 아버지는 소설 속에서는 1910년 한일합방의 해에 죽은 것으로, 일찍이 자살한 어머니는 소설 속에서는 살아서 탄실이를 응원하는 것으로 허구화시켰음을 밝혔다. 그 이유는 김명순이 성장하면서 여성적 주체성을 가지게 되고 그런 입장에서 가부장적 횡포를 부린 아버지에게 대한 미움과 그런 남성들에게 희생되고서도 도덕적으로 비난 받았을 어머니에 대한 이해가 생겼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탄실이와 주영이」는 주로 나카니시의 소설과의 관계 속에서만 언급되었지만 실상 근대 초기 계몽기의 평양의 열개화꾼 집안의 흥망성쇠에 관한 보고서로서 가족사 연대기 소설의 면모를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평양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면서 성장하는 탄실이와 어머니 산월이, 아버지 김형우, 숙부 김시우를 통해 근대 초기 서북지역에서의 전개된 계몽운동과 민족운동의 이면을 내부로부터 파악하여 이 작품이 계몽기를 시간적 배경으로 하는 가족사 연대기 소설의 계보 제일 앞머리에 놓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

| 참고문헌 |

- 김명순, 『돌아다 볼 때』, 『조선일보』 1924.3.31.~4.19.  
망양초, 『외로운 사람들』, 『조선일보』 1924.4.20.~6.2.  
김명순, 『탄실이와 주영이』, 『조선일보』 1924.6.14.~7.15.  
망양초 역, 『너희들의 등 뒤에서』, 『조선일보』 1924.6.3.~6.11.(미완)  
김명순, 『생명의 과실』, 한성도서, 1925.  
이익상 역, 『汝等の 背後로서』, 『매일신보』 1924.6.27.~11.8.  
김상배 편, 『김탄실; 나는 사랑한다』, 도서출판 솔피, 1981.  
서정자·남은혜, 『김명순 문학전집』, 푸른사상사, 2010.  
박현석 옮김, 『불령선인·너희들의 등 뒤에서』, 현인, 2017.  
中西未銷, 『平壤と人物』, 平壤日日新聞社, 1914.
- 김명훈, 『두 개의 신화와 두 번의 돌아봄, 그리고 하나이지 않은 x - 김명순의 『도라다 볼 때』 다시 읽기』, 『한국현대문학연구』 56, 2018.12, 363-396면.
- 김여진, 『3.1운동 이후 조선인 표상 연구 - 나카니시 이노스케(中西伊之助)의 조선3부작과 동시대 신문미디어 비교를 통해 -』, 고려대학교 대학원 중일어문학과 석사논문, 2020.02.
- 남은혜, 『김명순 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논문, 2008.
- 서정자, 『김기진의 『김명순 씨에 대한 공개장』 분석 - 김명순에 대한 미디어 테러 1백년의 뿌리』, 한국여성문학학회, 『여성문학연구』 제43호, 2018.04. 249-278면.
- 신혜수, 『김명순 문학 연구-작가의식의 변모양상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국문과 석사논문, 2009.
- 신혜수, 『中西伊之助의 『汝等の背後より』에 대한 1920년대 중반 조선 문학 장의 두 가지 반응』, 『차세대 인문학 연구』 7,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2011, 88-103면.
- 오황선, 『나카니시 이노스케(中西伊之助) 소설의 내면풍경』, 『외국문학』 29, 1991.12, 123-137면.
- 이원동, 『신경향파 소설과 젠더 배치의 상상력』, 한국어문학회, 『어문학』 138, 2017, 12, 367-392면.
- 이원동, 『『汝等の背後より』의 수용·번역과 제국적 상상력의 경계』, 한국문학언어학회, 『어문론총』 제68호, 2016.6, 313-340면.
- 정종현, 『나카니시 이노스케(中西伊之助)와 식민지 조선의 프로문학』, 인하대학교 한

국학연구소, 『한국학 연구』59, 2020.11. 35-70면.

安都根, 「中西伊之助における植民地朝鮮他者認識の構圖」, 『愛知縣立大學大學院國際文化研究科論集』13, 2012, 57-80面.

김경일 외 지음, 『한국근대여성 63인의 초상』,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5.

김복순, 『페미니즘 미학과 보편성 문제』, 소명출판, 2005.

이덕주, 『남산재 사람들』, 그물, 2015.

정운현, 『친일파의 한국현대사』, 인문서원, 2016.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친일인명사전』, 민족문제연구소, 2009.

<Abstract>

## A Study on the Kim Myung-soon's “Tan-sil and Joo-young”

Lee, Sang-kyung

In this study, I found all the missing parts of the Chosun Ilbo, where Kim Myung-soon's novel “Tan-sil and Joo-young” was serialized. Based on this edition, I explored the context of “Tan-sil and Joo-young.” It has also been confirmed that after Kim Myung-soon translated and serialized part of Nakanishi Inosuke's novel Behind You, serialized “Tan-sil and Joo-young.” From Kim's point of view, she translated Nakanishi's novel as an opportunity to publicize the true nature of Kwon Joo-young's character. Through translation, Kim wanted to show that Kwon Joo-young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herself. If so, it is not enough to show only Joo-young's appearance, and in order to convey the truth of Tan-sil, Kim wanted to draw the whole picture of Tan-sil, which is different from Joo-young.

Kim's mother committed suicide when she was young, and father survived in 1924. Nevertheless, in “Tan-shil and Joo-young”, Tan-shil's father died in 1910 and Tan-shil's mother is described as alive. The reason why the autobiographical novel describes it differently from the actual facts is that as Kim Myung-soon grew up, she gained an identity as a woman. This is because she hated her patriarchal and tyrannical father, while she gained a good understanding of her mother, who was morally condemned and believed to have committed suicide.

As for the significance of this work, “Tan-sil and Joo-young” is always mentioned only about Nakanishi novels, but in fact, it is a report on the rise and fall of Pyongyang's enlightenment during the early period of enlightenment.

Key words: Kim Myung-soon, “Tan-sil and Joo-young[탄실이와 주영이]”, Nakanishi Inosuke(中西伊之助), *Behind You*(汝等の背後より), Chronicle of Family History. Ahn Gyeong-sin, Kim Gi-jin

투 고 일 : 2020년 11월 29일

심 사 일 : 2020년 11월 30일-12월 10일

게재확정일 : 2020년 12월 11일

수정마감일 : 2020년 12월 26일